

종교 다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마태 21, 28~32)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가 '주께로 돌아오라(Tum To Me)(사 45:22)' 라는 주제로 다음달 16일~18일 제3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연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등 자체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매년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초교파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수련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예배 및 집회, 물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BBQ,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제공하는 약물중독 및 데이트 폭력 예방 세미나 등이다.

참가대상은 한인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18년 8월 기준) 선착순 120명이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나성순복음교회 홈페이지(www.lafgc.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323) 913-4499

'선교박람회' 발기인 모임 은혜한인교회

'제1회 선교박람회' 발족위원 위촉식과 발기인 모임이 지난 18일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렸다. 선교박람회는 오는 11월 5일~7일 이 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한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최고 명령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임을 기억하자. 전도와 선교는 순종해야 할 지상명령이며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요지경'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개관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일찍 들어가는가 하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마태 21,31).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나 세리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냐? 아주 뻔한 것입니다. 도둑이나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불행도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



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랍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답니다. 이곳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느냐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파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파악이 안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 구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제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고 싶어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첫째가 풀찌 되고 풀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 다.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이파 사람은 자신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8체질로 지키십시오.

8체질 진단 \$50

단 한번의 방문으로 정확한 체질을 진단해드립니다.

체질 침, 체질보약(한국산 최상품)

16년의 임상경험과 노하우
자신의 체질에 확신이 없거나, 8체질 치료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8체질 생식
- 수맥파검사
- 8체질 다이어트
- 성장탕
- 골반 교정
- 아토피 연고

각종 통증, 위장병 - 참지마세요!

두통, 어지럼증, 이명, 오십견, 테니스엘보, 요통(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통풍 위염, 속쓰림, 위산역류, 알러지, 비염, 불임, 전립선, 생리통, 불면증, 갱년기장애

아토피, 만성기침, 천식

다이어트-해독하면 빠집니다!

8體質 名家 체질나라 한의원

www.my8body.com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62.673.8397

월수금토 진료 | 각종 보험, 교통사고 문의 환영
18173 Pioneer Bl., #N, Artesia, CA 90701



원장 고진욱
8체질 임상경력 16년
중앙일보(체질과 건강) 연재